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옴니채널 혁신 기업

인도의 대표적인 식료품 플랫폼 FreshToHome은 비즈니스를 미래로 이끌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적합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오픈 소스 스택



기존의 IT 투자를 유연하게 활용



새로운 기술의 추가적인 자본화

식료품 원스톱 쇼핑

2015년 8명의 직원으로 설립된 FreshToHome은 현재 5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옴니채널 식료품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선한 육류와 생선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던 FreshToHome은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선 식품만 취급한다는 브랜드의 약속을 지켜내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인도의 154개 도시와 중동의 다른 도시를 포함해 160개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며 가금류, 양고기, 채소, 유제품으로 제품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옴니채널 리테일에도 진출했습니다. FreshToHome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Akamai Cloud Computing을 도입했습니다.

원활하고 중단 없는 운영 보장

CEO 샨 카다빌(Shan Kadavil)이 FreshToHome을 설립할 당시의 비전은 천연 및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리테일 기업인 Whole Foods의 인도 버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육류와 생선을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FreshToHome

인도 카르나타카 벵갈루루 freshtohome.com

업계

리테일

솔루션

Akamai Cloud Computing



전통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부와 농부들이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브로커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FreshToHome은 중간 브로커를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모델을 파괴합니다.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대신 세심하게 관리된 냉장 유통망을 통해 생선과 육류를 직접 창고로 그리고 유통 허브로 신속하게 운송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제품은 원료 조달 후 24~36시간 이내에 고객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신속한 배송과 0°C ~ 4°C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관리가 결합되어 최상의 신선도를 보장합니다.

FreshToHome은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원활한 운영과 일관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FreshToHome은 Commodities Exchange라는 특허 받은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어부와 농부들이 FreshToHome에 제품을 전자 경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지능형 시스템이 제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각 유통 허브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를 운영하며, 모두 FreshToHome의 중앙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2백만 명 이상의 고객이 FreshToHom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FreshToHome의 소비자 CTO인 사우라브 오디얀(Saurabh Odhyan)은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적절하게 재고를 추적해야 하고 올바른 예측 모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FreshToHome은 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중단 없는 운영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

지난 10년 동안 약 4배의 성장을 경험한 FreshToHome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추진력이 되어줄 플랫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대규모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Akamai Cloud Computing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오디얀은 "Akamai 플랫폼은 사용량에 따른 투명한 가격 책정으로 숨겨진 수수료가 없어,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원활하게 운영

FreshToHome의 모든 인프라는 이제 Akamai Cloud Computing을 통해 호스팅됩니다. 오디얀에 따르면 Akamai 플랫폼은 FreshToHome에 필요한 이식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그는 FreshToHome이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구축한 맞춤형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FreshToHome은 이 데이터를 집계하고 처리해 비즈니스 최적화 및 확장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생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분산형 Akamai 플랫폼이 없었다면 원시 데이터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접속하고, 여러 독점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

운영 수익성을 확보한 FreshToHome은 시장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자금 조달을 통해 옴니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160개 시장에서 구축한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운영 시스템을 실행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FreshToHome 은 앞으로도 Akamai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디얀은 "Akamai의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해 백엔드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Akamai Cloud Computing 플랫폼은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사우라브 오디얀(Saurabh Odhyan) FreshToHome 소비자 CTO



2015년에 설립된 FreshToHome은 화학물질 없는 해산물, 가금류, 육류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인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기반 리테일 기업입니다. 닭고기, 닭가슴살, 오리, 오리알, 비고바 오리, 양고기, 양갈비, 염소, 다진염소 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물 생선, 바다 생선, 처트니, 반죽도 제공합니다. FreshToHome은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shtohome.com

